

장수 리스크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3~5년 주기로 개정하는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제10회)에 따르면 국내 남성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다. 5년 전보다 각각 2.8년, 2.2년 늘었다.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통상 상가에서 호상과 애상을 말한다. 평범한 죽음의 경우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았는 지가 가능자다.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늘어난 것”이라며 “평균수명 및 고연령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 또는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래 살 위험이 화두다. 장수 리스크다. 실제로 일본을 뒤따라 가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기준 19.0%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2005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산의 수명도 늘어나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따끔한 조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이 평탄하길 바란다. 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다. 사는 동안 돌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비를 맞고, 눈길을 걷기도 한다. 행복한 노후는 누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조사결과(2021년)에 따르면 서울에서 사는 경우 월 330만원이 필요하다.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다. 혼자인 경우 월 205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르면 50대 중반, 또는 만 60세에 은퇴하는 샐러리맨이 많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은퇴 이후 월 330만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3~4층 탑을 쌓아야만 불편하지 않은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우물쭈물 하다가 불행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김영의 서강대 교수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한다. 한달 일해 30만원을 벌면 2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과 같다는 논리다. 그래서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직(職)’보다는 ‘업(業)’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업이 있으면 직을 얻고, 직만 찾으면 업을 잃는다는 것

이다. 직장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자산의 수명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김동업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본부장은 퇴직하면 연금도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부가 각자의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자녀를 둔 사람은 한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요즘 결혼하는 MZ세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 “엄마 아빠, 결혼할 때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주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라고. 결혼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가 올해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면서 나온 얘기다. 작년까지 자녀 결혼때 5000만원을 준비했다면 이젠 1억5000만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양가의 예라는 의미다. 자녀의 잡음 없는 결혼을 위해선 양가에서 지원하는 3억원이 디플트(최초 설정의 값·기본적 밑바탕)가 된 세상이다. 돈이 없어도 몸의 풍요를 갈망하는 것이 요즘 세대다.

걱정을 덜어낼 노후를 위해선 기대치를 낮추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도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원 바라보는 한국인



김 언 세
(정책사회부)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위기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서둘러 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신용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사건이 아닌 국제신용평가사 경고임을 밝혔었다.

한국인은 매달, 매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나이 45살에 진입한다.

10년 전 우리 국민은 평균 40살을 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월 39.7세였던 평균나이는 지난달 기

준 44.9세까지 치솟았다. 15년 전인 2009년 2월만 해도 30대 중후반(37.2세)이었으나 이제 원을 바라보고 있다.

전남(2024년 2월 48.6세)과 경북(48.2세) 거주민은 올해 이미 40대 후반이다. 이 두 지방의 여성 나이는 평균 50세(50.4, 50.0)를 이미 찍었다.

지난 10년간 국민 평균연령은 연평균 0.52살 늘어났다. 게다가 최근 1년간은 늘고 속도가 더 빨라져 작년 2월(44.3세)에 비해 0.6살 더 먹었다.

행안부의 연령대별 인구는 심각성을 더한다. 60대(올해 2월 767만 명)가 머지않아 40대(790만 명)를 따라잡을 기세다. 60대 국민 수는 이미 30대(654만 명)보다 100만 명 넘게 많다. 곧 40대마저 추월하면 남는 건 50대뿐이다.

10년 전에 60대(450만 명)는 40대(894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고, 30대

(799만 명)보다도 350만 명 가까이 적었다. 당시 60대는 20대와 10대는 물론 10세 미만 인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년 만에 연령대별 7위에서 차례로 따돌리고 이제 2위 자릴 넘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6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총 15개 부처가 기획단에 속해 있다. 출범한 지 9달이 흘렀다. 이제 뭐라도 답을 내야할 때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최근 3개년(2021~2023)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코로나 19 이후 회복하는 도중이기에 부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 국민이 늘어 평균 50·60대가 돼도 경제가 굴러갈까 하는 염려가 든다. AI와 로봇이 있어 괜찮은가.

/kys@

오늘의 운세

3월 22일 (음 2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쉬었다 가자. **48년생** 주머니 서고 러우니 말조심. **60년생**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난다. **72년생** 인생사 기쁨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84년생** 투자를 하려면 미래전망을 공부.



37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49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하자. **61년생** 미국행이던 어느 길이라도 가다 보면 결과가 좋다. **73년생** 아집을 접으면 행운이 도래. **85년생** 평화로운 집안은 무릉도원이다.



38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다. **50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62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74년생** 평범하게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적으나 성과도 적을 것. **86년생** 애들에게 메모상친자교이다.



39년생 자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기쁘다. **51년생** 화려한 외출은 오히려 부담스럽다. **63년생** 영업이익이 왕성하니 다시 움직이자. **75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온다. **87년생** 아내의 예절로 자녀교육이 절반은 성공.



40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다. **52년생** 회로애락을 나타내기보다는 드러내지 않도록. **64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나 책임도 따르게 된다. **76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조심. **88년생** 동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드물 것.



41년생 가족간 돈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53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바를 달성. **65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한다. **77년생** 날씨 탓 내 탓 나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라. **89년생** 공연한 바람에 동화되지 않도록.



42년생 배우자가 가장 큰 조력자임을 알기 아는데. **54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66년생** 사랑에 지친 큰 복수는 완벽하게 잊어 주는 것. **78년생** 영업의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니 보람이 있다. **90년생** 서예로 우울함을 벗어보라.



43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야망을 베풀자. **55년생** 가는 길도 물이여야 실수가 없다. **67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길다. **79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날. **91년생** 마땅치 않은 시기에 투자는 손실.



44년생 작은 것에 집착 말자. **56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좁은 공간을 빙빙 도는 하루. **68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80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92년생** 남에게 뒤처지는 것이 게으른 탓 아니겠는가.



45년생 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57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거래가 손조롭다. **69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이다. **81년생** 부모를 존경하면 집안이 경사. **93년생** 업무실적 고민보다는 부족한 곳을 분석.



46년생 모임을 거창히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58년생** 모난 돌이 정 맞으니 오늘은 자중해야 한다. **70년생** 남의 머리만 믿고 있다는 일을 고르친다. **82년생** 바라던 취직으로 집안에 웃음꽃. **94년생** 오랜만에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는 날.



47년생 농작물 수확이 있다. **59년생** 시비 및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해야 혼란스럽지 않다. **71년생** 남편은 한 하늘에서 살 수 없는 원수 같다. **83년생** 돈을 버는 것도 한 발짝씩. **95년생** 소풍 지출이 많으면 예나지도 빠져나가게 되니.



김상회의四季 자존심은 문밖에

“자존심은 문밖에 두고 오세요.” “독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 라는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관한 얘기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공동으로 작곡한 이 곡은 역시 천재적 프로듀서로 알려진 퀸시 존스가 당대의 톱 가수들을 대거 참여하게 한 인류애적 프로젝트다. 앨범에 참여한 스타들을 대충 열거해 보자면 스티비 워너 티나 터너 레이 찰스 빌리 조엘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그야말로 당시 최고의 스타 싱어들이었다.

슈퍼스타 한두 명을 모이게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50명 가까운 스타들을 밤새 작은 스튜디오에 불러들여 놓고 녹음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당시 아프리카를 휩쓴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자 이 문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느낀 퀸시 존스가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마이클 잭슨 라이오넬 리치와 마음을 모은 결과다. 기사 내용을 보니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열리는 단 하루를 녹음일로 정하고 스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극비리에 몰입 섭외를 진행했고 대다수는 자신이 어떤 파트를 부르게 될지도 모른 채 스튜디오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때 녹음실 문 앞에 붙어 있던 문구가 “자존심은 문밖에 두고 오세요.”(Check your ego at the door.)였다고 한다. 11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작업의 결과 이 싱글앨범은 빌보드 차트는 물론 전 세계 음악차트를 휩쓸었으며 1400만불이 넘는 수익금은 모두 기부되었다. 뜻이 좋아도 나쁜 곳발 한다는 스타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의기투합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퀸시 존스는 자존심을 문밖에 두고 오라고 일갈한 것이다.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개개인에게도 요구되는 다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9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0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알파벳을 증가시켰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4	3	6	8
7				9	
	5		1		4
8			9	5	
	7	5			2
4			3		8
	6				7
3	2		6	7	1

	6	1		4	8	
				4	3	9
9	4					
3			2			
	7		5		9	
			8		1	
6	1	5		6	2	
		8	3		5	7

6	7	1	8	2	9	5	2	8
2	8	2	9	6	7	9	8	1
9	8	9	1	8	2	6	7	4
2	1	8	7	9	9	8	2	6
8	6	7	2	8	1	2	9	9
9	9	2	6	2	8	1	7	8
7	2	8	2	1	6	8	9	9
1	2	6	9	5	8	7	8	2
8	9	5	8	7	2	6	1	2